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5호 [루게 제2513호]

주체 107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음력 9월 1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은 세계가 경탄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 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단마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에히프에서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3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73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 밑에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

에로 이끌었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린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 시기부터 단 한번의 로선상차이나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온 세계가 경탄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에히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령도와 당의 령도아래 우리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는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단마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축

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 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도이칠란드, 벨라리아, 로씨야에서 4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푸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선대수령들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셀레 리꺼푸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97년 10월 8일은 수령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을 발행

조선에서 올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유음전지 1종, 개별우표 2종, 소형전지 1종)을 발행하였다.

유음전지의 우부분에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주체107(2018)년 4월 27일》이라는 글말이 새겨져 있다.

중심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담에 앞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판문점남측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남기신 친필 《새로운 령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령사의 출발점에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반영된 우표가, 광역에는 북남수뇌분들께서 오르신던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조선지도가 그려져있다.

개별우표에는 《우리는 하나》라는 글말로 형성한 조선지도와 가사 《우리는 하나》가 반영되어있다.

한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기념 우표첩 《우리는 하나》도 발행되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기상수문 및 수리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기상수문 및 수리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2일과 23일 기상수문국에서 진행되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기상수문국,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연구사, 교원, 박사원생,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기상수문부문과 수리공학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발표회에는 기상관측과 예보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물자원 관리와 수력, 조수력발전소건설에서 나

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130여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발표회에서는 《공간정보해석기술을 적용한 자연에네르기열량체계발과 그 응용》, 《갑실타빈출력량의 최량화》 등의 논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중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도 있었다.

발표회기간 기상레이더기술과 조수력발전소건설의 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들도 있었다.

본사기자

제22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제22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체육연구원, 조선체육대학, 국가과학원, 각지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 등 360여개의 단위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측정기재, 체육기자재, 체육의약품 및 영양제, 체육과학기술도서와 논문들을 비롯하여 1 400여건의 체육과학기술성품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2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개막사를 김일국체육상이 하였다.



본사기자

재증동포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재증동포들이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훈춘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조선로동당을 존엄높고 강위력한 불멸의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존모의 정이 어린 태양의 꽃들이 조선로동당 마크를 중심으로 전시되어있었다.

전시대열에는 훈춘시 중국

기업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놓여있었다.

전시회개막행사에는 재증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과 훈춘시지부장을 비롯한 재증동포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부총영사와 훈춘시에 체류하고있는 우리 나라 일군들 그리고 중국 관제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중국 세일명화수출입무역유한공사 총경리인 재증동포 양홍준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훈춘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본사기자

조선통신사 창립 70돐 기념모임 진행

조선통신사창립 70돐 기념모임이 1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준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장, 배진구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김성훈 선전문화국 국장, 조선통신사 일군들, 간도지방 총련본부위원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통신사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허준만의장이 축하발언에 이어 최홍 조선통신사 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통신사가 이역땅에서 지난 70년간 맡겨진 통신보도활동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회세의 천출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통신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본사기자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진행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에 따라 산림협력분과회담이 22일 북남공통협력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과 단계적인 대책들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해외의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첫 사업으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어 얼마전에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길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을 두고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평양남북수뇌회담결과를 철저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북공용합의를 환영한다》, 《이번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적극 환영해나가고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프랑스의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의내용가운데서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올해안에 진행하기로 한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남고위급회담결과는 조선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북남의 눈에 띄우는 노력이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또 다른 진전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이번 북남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부동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느끼었다.

지금 온 겨레는 역사적인 판문점

본사기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성실히 리행되어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령사가 힘차게 전진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북과 남 어느 일방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고있다.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평화번영의 시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령사적인 실천강령이고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며 판문점선언리행의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통일로 이어나가기 위한 통일강령, 호혜와 공리공평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민족공동번영선언,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협과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켜 이 땅을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선언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북남공동선언들의 성실한 리행에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통일의 밝은 레일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령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민족화합의 새 령사,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신기복